

# 마음챙김 통해 환경운동 하는 그린상가

### 월간 '불교문화' 명상 기반 美 대안적 환경운동 그룹 소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연기를 바탕으로 동체대비를 체득해 자리아타를 실천함에 있다. 또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와 남이 공생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발행하는 월간 <불교문화> 1월호에는 미국의 환경단체 그린상가를 소개했다.

책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대안적 환경운동 그룹'이라 소개한 그린상가(Green Shanga)는 정신심리치료사인 조너선 거스틴에 의해서 2000년 설립됐다. 활동 10여년의 이 단체는 美 버클리,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이스터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북부, 북부 해안지역인 마린 카운티, 내륙에 위치한 소노마 카운티와 반도 지역까지 5개의 지부에서 100여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명상 지도자 잭 콘필드, 캘리포니아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에드바 산티도 그린상가의 회원이다.

그린상가는 작은 규모지만 회원 각자가 교육 강좌와 캠페인을 이끄는 실력을 갖추고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을 쓴 안희경 저널리스트는 "그린상가의 회원들은 모든 회합, 교육, 캠페인에 앞

서 명상을 한다. 적어도 30분 이상 명상하며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며 "이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은 반은 환경을 주제로 반은 명상수행으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주장을 하다보면 '특정한 대상에 반대하는 우리'가 되기 쉽지만, 그린상가 회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우리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곧 우리가 곧 전체이며, 대상이 곧 우리라는 것.

그린상가에서 10년간 활동해 온 간사 엘리자베스 리들은 "우리의 운동은 환경적인 상가(Shanga)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불교적인 종교색이나 환경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린상가를 처음 찾은 이들은 각각의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한다. 그린상가에서 진행되는 회의·교육·워크숍 등은 자신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며, 보다 깊은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기회이다.

엘리자베스 리들은 "명상을 하면 서로에게 채워진 경계의 빗장이 자연히 풀린다. 더불어 세상을 향해 뿜어내던 내 안의 화도 녹아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린상가는 >플라스틱 공해 캠페인 >



美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린상가 회원들은 명상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삶부터 바꾸고 있다. <사진제공=불교문화>

잔디 걷어내기 운동 >10대 환경 지도자 아카데미 등 3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공해 캠페인을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우유회사인 클로버(Clover)의 포장용기에서 플라스틱 마개를 없앴다. 대형상점의 봉지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서도 연간 8톤에 가까운 비닐봉지 사용도 줄였다. 잔디 걷어내기 운동은 잔디를 대신해 발을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캠페인으로 진행 중이다. 10대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그린상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린상가는 환경 캠페인 등을 설명할 때 늘 '감사합니다'로 편지를 시작한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요구를 정중히 요청한다. 대상과 하나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다.

안희경 저널리스트는 "그린상가는 환경운동 속에 마음챙김을 실현하는 단체"라며 "스스로 세상과 하나 돼 연결됨으로써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얻고 있다. 그린상가 활동은 대안적인 환경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대기설법 학문적 해석 돋보여

### 세계의 불교학자(3)

곰브리치 옥스퍼드대 불교학센터 교수



많은 경전 가운데 붓다의 말씀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팔리 경전이다. 팔리 경전은 현존 문헌 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팔리 경전은 최근 새로운 자료들이 첨가되고 몇몇 경전들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 또, 붓다 당시 및 그 이후의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된 형태를 보여 경전의 정통성이 도전 받고 있었다.

팔리 경전의 학문적 위기를 구한 이가 옥스퍼드대 곰브리치 불교학센터 교수이다.

곰브리치 교수는 팔리 문헌의 판본별 비교연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붓다의 대기설법과 이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 메타포에 주목했다. 그는 대기설법과 비유적 언어들에 투영된 붓다의 의도를 살려내는 작업이 초기불교 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학계에 주목을 받았다.

대기설법은 붓다의 독특한 대화법이다. 붓다는 다양한 종교·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교화시킴에 있어 대기설법을 활용했다. 붓다는 스스로를 질문자 입장에 가깝게 접근 시킨 후 상대의 견해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토의를 했다. 붓다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 주고 받은 각각의 용어들에 새로운 불교적 관점들을 더해 붓다 자신의 결론으로 상대를 유도했다.

곰브리치 교수는 "붓다의 대기설법은 당시 다양한 교리들과 우파니샤드로 대표되는 브라만 사상을 불교로 수용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글자 자체의 정의에 바탕을 둔 아비달마 논자들의 직설 화법으로 붓다의 방법론과 비유적 언어들 속에 투영된 숨은 의도가 잊혀지고 결국 초기경전의 교리들이 점차 다르게 해석되고 조직화됐다고 보았다. 곰브리치 교수는 이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교리적인 발전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설도 제시했다.

곰브리치 교수의 학설은 영국의 불교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곰브리치 교수는 런던 킹스컬리지 수 해밀턴(S. Hamilton) 등과 함께 아비달마적 변형을 일종의 오염으로 보는 전통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로 자리를 굳혔다. 이같은 그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가설이었다. 아비달마적 변형과 다양한 해석을 일종의 교리적 발전으로 보려는 랑스 카진(L. Cousins) 등 팔리 아비달마 학자들과 많은 논쟁이 일기도 했다.

곰브리치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계율과 실천: 스리랑카 고원지대의 전통적

인 불교'이다. 스리랑카 시골 마을에서 6개월간 거주하며 그곳 출·재가자간 관계를 사실적으로 분석해 작성된 논문은 불교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곰브리치 교수의 논문은 1970년대 초반 문헌 중심의 불교 연구 풍토를 살아가는 불교의 모습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일대 혁신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이후 곰브리치 교수는 1976년 옥스퍼드대 동양학부에 소속된 '보덴 범어 교수'(Boden Professor of Sanskrit)로 임용되

팔리 문헌 연구 한계 다다르자 대기설법 통해 학문적 해법 제시 팔리본 등 초기경전 연구 석학 옥스퍼드 내 불교학센터 설립

면서부터 점차 문헌 중심의 불교 연구에 힘썼다.

곰브리치 교수는 <범어: 고전 언어 입문>을 저술해 범어학자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마이클 쿨슨(Michael Coulson)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사라져 버릴 뻔했던 미완성 범어 문법책 원고를 물려받아 세심하게 교정해 펴낸 책은 현재 범어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 교재로 유명하다. 또, 저서 <불교의 세계>도 불교입문서로 영미권에서 각광받고 있다.

곰브리치 교수가 1994년에 팔리경전학회장에 취임하면서 한국 불교계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대 교수 퇴임 후 그는 옥스퍼드 불교학센터를 설립하고 옥스퍼드의 불교학 연구 전통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동국대 안양규·황순일 교수 등이 그의 지도를 받았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美 스프링필드에 첫 불교사원 생긴다

### 지역 베트남인사회 숙원 ... 오는 5월까지 완공

미국 미주리 주 소도시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 첫 불교사원이 세워진다. 스프링필드 온라인 매체 오자크퍼스트(http://ozarkfirst.com)는 "1월 15일 스프링필드 하이 스트리트(West High Street) 인근에서 베트남 불교계의 '사원 건축 기공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틱 통 찬(Thich Thong Chanh) 스님의 축원으로 시작해, 150여명의 대중들이 쌀과 소금을 사원건축 부지에 뿌리는 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공식의 열기는 스프링필드의 매서운 추위를 잊을 만큼 뜨거웠다.

사원이 들어서는 곳은 스프링필드 남서부에 위치한 '2901 W. High St.'의 9308㎡(2816평) 규모의 대지로, 베트남인사회의 기부로 매입됐다. 완공은 베트남인사회의 축제인 Buddha Day(부타일, 음력 4월 8일)에 맞춰 오는 5월 말까지이며, 베트남 불교사원 특유의 기와와 벽토로 마감될 예정이다. 시공은 설계·건축 전문회사인 RWA(Ross Williams Architects)가 맡았

다. RWA는 미국 내 30여 개의 종교시설을 지은 바 있는 베테랑 시공업체이다.

"사원이 지역 불자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요람이길 희망"한다는 틱 통 찬 스님은 "그들은 베트남의 전통을 잊지 않고 지켜내며, 대대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스프링필드 베트남인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베트남인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힘도 키워내고 싶다"고 말했다.

시카고의 트럼 팻 호크(Trung Phat Hoc) 사원에서 수행한 틱 통 찬 스님은 1년 전부터 스프링필드에서 활동했다. 당시 스프링필드에는 불교사원이 없었던 터라, 어렵게 법회장소를 섭외하며 비정규 법회를 봉행해 온 스님은 '사원 건립'이라는 사원을 세우고, 베트남인사회를 중심으로 건축자금을 모아, 부지와 부속가옥을 사들이는 등 건축불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기공식에 참석한 부 니구엔(Buu Nguyen · 59)은 "그동안 예불을 하려면 캔자스시티(Kansas City)와 세인트루이스



미국 미주리 주의 소도시 스프링필드에 첫 사원이 들어선다. 베트남 불교사원 기공식 현장, 사진 맨 오른쪽이 틱 통 찬(Thich Thong Chanh) 스님.

(St. Louis)를 가는 것은 물론 미주리 점경 도시인 털사(Tulsa, 오클라호마 북동부 소재)까지도 가야했다"고 전했다.

사원건축을 위해 베트남인사회에서 가장 큰 기부를 했던 그는 32년 전 베트남전쟁이 종료된 직후 이곳에 정착해, 현재 니사(Nixa, 미주리 크리스천카운티 소재)에서 상하이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 부 니구엔은 "베트남인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불심이 없었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스프링필드 인구통계에 따르면, 불교도의 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이어 네 번째에 머물 정도로 미미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순례자에 우호·사랑 자비 전달

네팔 정부가 1월 14일 카트만두 룸비니에서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2, 룸비니 방문의 해(Visit Lumbini Year 2012)'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람 바란 야다브(Ram Baran Yadav) 네팔 대통령이 "보다 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부처님 탄신지, 룸비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순례자와 여행객들에게 우호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전하기 위해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카르마 상보(Karma Sangbo) 스님은 "우리는 룸비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순례자와 여행객들에게 우호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전하기 위해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캠페인은 과거 수년간 공산주의자 반란으로 국제사회에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현 네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 성지순례

## 미얀마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23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바간·만달레이 해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 3월 출발

◇ 양곤·바간·해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바간·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바간·해호·짜이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바간·만달레이·짜이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창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뵙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뵙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④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⑤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